

李白 詩歌中的 水의 意象

— 急流性을 중심으로 —

곽 이 부*

〈 차례 〉

1. 序論
2. 本論
 - 1) 水의 普遍性 意象
 - 2) 水의 急流性 意象
3. 結論

1. 序論

물(水)은 生命의 源泉이기에 물이 있는 곳에 비로소 生命이 있고 生氣潑刺한 創造가 있었다. 모든 生物처럼 人類는 잠시라도 물을 떠나서는 生存할 수 없어, 江湖의 물과 인연을 자연히 맺었다.

人類의 文明史를 종합해 보건대, 世界 文明의 발상지는 모두 江河大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金字塔으로 象徵되는 고대 에집트(Egypt)문화는 나일(Nile)강 유역이고, 古代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文化의 發祥地는 티그리스(Tigris)와 유프라테스(Euphrates)강 유역이고, 古代 印度文化는 갠지즈(Gangis)강 유역에서 탄생했다. 이처럼 中國의 歷史와 文化는 江河와 不可分의 관계이며, 특히 浩浩蕩蕩한 黃河와 長江이 손꼽는다. 中國에서는 揚子江을 長江이라 簡稱한다. 中華民族의 始祖로 尊奉되고 있는 黃帝와 炎帝는 黃河유역에 開拓의 遺跡을 남겼는데 이를 仰韶文化라고도 한다. 170萬年前 長江 상류 金沙江의 江邊에 살았던 “元謀人”은 中國에서 가장 일찍 출현한 住民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다. 兩江은 新石器文化의 특징을 가장 잘 구비한 곳인데 黃河유역은 古代 夏·商·周 三朝가 계속 中原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大地를 主宰했고 古代 華夏族 및 그 文化를 培養시켰다. 長江유역 및 이남지역은 荊楚族이 南北으로 서로 왕래 融和하였다.¹⁾

中國의 廣大한 土地에 수많은 種族이 十大江湖²⁾에 民族團結과 相互促進 혹은 融合된 紐帶關係를 自然히 맺어 이뤄, 中國은 이 有機體 안의 크고 작은 血管作用을 했다.

그리고 江河에는 相應하는 湖水가 있어 하나의 天然의인 貯水池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人文地理學 상황에서 經濟文化의 特徵과 多樣하고도 緊密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中國은 江河湖泊이 많은 나라로서 生活과 生産에서 모두 不可分의 關係를 過去와 現在는 물론이려니와 미래에도 유지할 것이다.

李白의 詩歌中에서 그의 風格의 特性인 雄渾, 素朴, 莊嚴, 清新, 自然으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景物詩인데 自然의 景象은 江河湖泊의 물(水)이라고 하겠다. 景物은 人物이 活動하는 空間으로 作品에서 描寫하는 바의 環境 중의 構成部分이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景物은 단순히 風景 혹은 景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故로 景物은 社會의 事物과 自然의 景象을 포괄하는 것으로 “背景” 혹은 “環境”이라고도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自然의 景象 즉 日月星辰, 山川草木等까지도 포함된다.

風格은 文學作品 中에서 표현된 作家의 個性, 創作方法과 運用의 民族形式 및 反映된 時代精神, 社會生活 內容 等の 特色이 곧 文學風格이다. 즉 “글의 風格은 그 사람과 같다(文如其人)”고 한 것은 그 글에 그 사람이니, 各各의 作家마다 各各의 文學風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故로 “風格은 꼭 그 人間이다.(風格卽人)” 風格은 바로 作家 個性의 表現이다. 風格은 階級性, 時代性과 民族性을 가지고 있다. 例컨대, 中國의 小說과 불란서의 小說은 風格이 틀리다. 이것은 같지 않은 民族文學의 같지 않은 風格이다. 中國 唐代 詩歌의 風格과 宋代 詩歌의 風格은 같지 않다. 南宋代 詞의 風格과 北宋代 詞의 風格은 같지 않다. 이것은 時代風貌의 相異에 따라 作品 中에서 體現된 風格 또한 달라짐을 지적한 것이다. 唐詩에서 李·杜로 並稱되는 李白 詩歌의 風格과

1) 庄輝明, 李向平, 李朝遠 《十大江湖》, 上海古籍出版社, 1992, pp.1~3

2) 黃河, 長江, 大運河, 黑龍江, 淮河, 珠江, 雅魯藏布江, 鄱陽湖, 洞庭湖, 太湖

杜甫 詩의 風格은 틀리다. 이것은 서로 다른 作家가 作品 가운데서 서로 다른 風格을 표현함을 지적한 것이다.³⁾ 그의 山水詩는 山水畫처럼 “聲東擊西”, “橫向聯擊”의 手法이 농후해 主題로 水의 意象을 單獨으로 劃分짓기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本人 나뉠대로 分類하였는 바 未熟한 곳이 많으리라 思料된다. 故로 多樣한 水의 意象群이기에 局部的인 李白 詩歌의 引用과 限界性의 考察이라 하겠으며 가까운 將來에 계속 단편적인 小論文으로 補完하는 그 첫걸음이라 하겠고, 副題를 붙인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2. 本論

人類가 山水를 審美의 對象으로 欣賞, 歌頌, 讚美한 由來는 벌써 아주 오래되었다. 中國에서 가장 빠른 詩歌集 《詩經》에서 水에 대해서는 「저 洛水를 바라보니, 굽이굽이 하늘에 맞닿은 은물결」(瞻彼洛矣, 維水泱泱.〈小雅·瞻彼洛矣〉)이라하였고, 春秋時代 孔子도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山을 즐긴다」(知者樂水, 仁者樂山.《論語·雍也》)라 하였는데 이처럼 山水之美의 享樂에 대해 일찍부터 人類의 所重한 見解를 밝힌 바를 볼 수 있다. 漢代는 大賦로 山水를 描寫했지만, 魏晉時代 이래는 專門的으로 山水를 詩로 읊고 그림으로 그려 가장 興盛한 시기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연면히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다. 오늘날의 觀光産業이 發達한 때 人類가 山水之美를 감상하는 것은 普遍化되었고, 유희해 하며 活力素가 되고 있다. 水의 종합적인 意象을 더욱 強化시키는 것은 水와 月이 서로 組合하던가 혹은 다른 景物과 조합하는데 山川, 雲霧, 花鳥, 楊柳 等과 결합하여 복합 意象群을 이뤘 完備된 審美系統을 구성한다.

意象은 英語로 “image”인데 中國에서는 흔히 “影像”, “形象”, “幻想”으로 번역이 되는데 西歐文學에서 英美等 國家들이 詩歌의 流派로 1910년부터 1920년까지 풍미했던 思潮를 意象主義라고 하여 意象이 普遍的인 용어라 하겠다. 現代 詩人 艾青은 “形象은 造塑하는 過程으로 곧 詩人은 現實을 認識하는 過程이다. (形象塑造的過程, 就是詩人認識

3) 孫輝煜, 《文學知識》, 內蒙古教育印刷, 1977, pp.146~147

現實的過程.”), 더 具體的인 것이고 좀더 形象的인 것이다; 더 抽象的인 것이고 좀 더 概念的인 것이다.(愈是具體的, 愈是形象的; 愈是抽象的, 愈是概念的.)⁴⁾라고 했다. 意象에 대해 “意象은 感覺에서 感覺의 허물이 벗겨진 것들이다...(意象是從感覺到感覺的一些蛻化.)”, “意象은 순전히 感官的인 것이고, 意象은 具體화된 感覺이다.(意象是純感官的, 意象是具體化了的感覺.)⁵⁾”라고 하여 兩者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故로 意象은 詩人의 想象 中의 具體的인 形象이고, 幻想을 통해 加工된 創造的인 詩學用語라고 하겠다.

여기서 水의 意象分析을 통해 李白의 審美 價値를 탐색하는 側面에서 李白의 藝術風景과 個性風貌를, 豪放한 藝術風格을 究明하고자 했다.

1) 水의 普遍性 意象

그가 어려서 공부하던 때 水의 意象은 天真爛漫하고 平和로웠다. 그가 18세 때 지은 天真無垢한 詩가 그것을 증명한다.

大吠水聲中, 桃花帶雨濃. 樹深時見鹿, 溪牛不聞鐘. 野竹分青靄, 飛泉掛碧峯. 無人知所去, 愁倚兩三松. <訪戴天山道士不遇>

계곡 물소리에 개 짖는 소리 엉겨들어, 복숭아 꽃잎 비를 먹으며 더 붉더라. 깊은 숲 속 사슴 스치는 소리, 한 낮 계곡엔 종소리마저 안 들리네. 푸른 아지랑이 사이 대나무 더 돋보여, 폭포수 드높아 푸르른 산에 언친 듯. 만나 뵈 도산님 간 것 모르니, 서글퍼 두서너 소나무 그루에 기댄다.

옛된 소년이 春季에 山中의 純眞한 青春의 感傷을 素朴하게 表現해 낸 그의 첫 作品으로, 開元 7年(719年)에 지었다.⁶⁾ 所謂“有聲有色”의 景物이 聽覺, 視覺의 感覺的인 面과 春景이 近景과 遠景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李白은 流水의 角度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哲理詩를 吟詠하여 人生은 須臾이고 水의 意象은 活性化했고, 人間에게 必須的인 것이며 永遠

4) 艾青, 《詩論》, 人民文學出版社, 1983, 北京, p198

5) 艾青, 《詩論》, 人民文學出版社, 1983, 北京, p199

6)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東京, p.2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峨眉山月半輪秋，影入平羌江水流。夜發清溪向三峽，思君不見下渝州。
〈峨眉山月歌〉

아미산에 얹혀진 반달, 그림자만 평강물 따라 흐르네. 깊은 밤 청계를 떠나 삼협을 향해, 님 그리며 못 본 채 유주로 간다네.

七言絶句의 단 28자 中에서 峨眉山과 渝州의 地名 外에 平羌江(青衣江), 清溪와 三峽(瞿塘峽, 巫山峽, 西陵峽)을 天衣無縫하게 엮었다. 이 一帶의 많은 江峽과 물의 意象으로 친우에 대한 그리운 感情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李白은 中國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流傳되어온 大禹의 治水 故事 속의 禹의 形象을 特徵있게 묘사했다.

堯舜當之亦禪禹，君臣失分，龍爲魚。(〈遠別離〉)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께 선양한 것은 마땅하고, 君臣을 잃으면 龍도 고기로 된다네.

大禹理百川，兒啼不窺家。(〈公無渡河〉)

우임금님 하천사업으로 홍수를 막았고, 배를 탄 어린이에도 울음소리 없네.

舜昔授禹，伯成耕犁。(〈萬憤詞投魏郎中〉)

순임금 천하를 禹에게 물려줘 백성은 제후 마다하고 밭갈이했네.

神話 가운데의 大禹에 關한 전설은 時間의 추이에 따라 百姓들의 英雄的인 形象으로 傳誦되었다. 李白은 洪水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上古 時代의 百姓들을 代表하여, 洪水와의 전쟁에서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승리한 禹를 英雄化하였고, 堯·舜·禹로 并稱하는데 손색없이 描寫했다.

孔子的 「川上嘆」, 즉 “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舍晝夜。” 〈論語，子罕〉에서 聖人孔子도 流水처럼 時間은 빨리 지나고 成果는 未盡하다고 느끼는데, 李白은 詩歌 속에서 적지 않은 流水에 대한 感慨를 읊었다.

朝爲斷腸花，暮逐東流水。前水復后水，古今相續流。新人非舊人，年年橋上遊。(〈古風〉其十八)

아침에 단장의 꽃을 보았는데 저녁엔 東流水를 쫓는다. 앞에 흐르는 물 따라 뒷물 이어 흐르고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린다. 지금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年年歲歲 다리 위에서 노닌다.

黃河走東溟，白日落西海。逝川與流光，飄忽不相待。《古風》其十一

황하는 동해 어두운 곳으로 흐르고 밝은 해는 서해로 진다. 흐르는 냇물과 햇빛은 홀연히 사라져 서로 믿어 의존하지 않네.

君不見綠珠，潭水流東海，綠珠紅粉沈光彩。綠珠樓下花滿目，今日曾無一枝在。《魯郡 祠送竇明 府薄華還西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녹주 潭수가 東海로 흐르는 것을, 녹주가 연분홍 화장을 해도 화사함으론 흐르는 물에 가라앉고 녹화루에도 花草가 만발해 오늘날엔 모두 다 사그라져 없네.

四十餘帝三百秋，功名事迹隨東流。《西陵歌送別范宣》

마흔 몇 분의 황제 3백년동안 부귀공명 역시 동해 바다로 흘러가 버렸네.

功名富貴若長在，漢水亦應西北流。《江上吟》

부귀공명이 만약에 영원토록 있다면 의당 漢水の 흐름도 西北으로 흐르리라.

榮華東流水，萬事皆波瀾。《古風》其三十九

인간의 영화도 동쪽으로 흐르는 물 세상만사 모두 파란만장하네.

世間行樂亦如此，古來萬事東流水。《夢遊天姥吟留別》

인간세상 행복도 다 이와 같거늘 옛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 동해바다로 흘러갔네.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奔流到海不復回。《將進酒》

그대 못보았는가 하늘에서 내린 황하물이 바다에 쏟아져내려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함을.

이러한 流水의 意象을 통해 우리들은 詩人의 人生思考의 深度와 복잡 다단한 心理狀態를 感知할 수 있다. 李白은 潭水의 名稱이 錄珠인 것을 晉代의 石崇이 寵愛했던 錄珠로 연분홍 화장도 流水에 흘러가 사라진다고 했다. 流水로 영원무궁한 時間과 空間을 초월적인 人間과 對比시키고 있는 것이 다른 方面으로 보자면 客觀的이고 超然한 眼光으로 歷史上 찬란했던 時期를 觀察했고 반면 순간적인 富貴功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실은 個體生命의 집착을 어쩔 수없이 포함시켰고, 초연한 배후에는 理想의 파멸을 또한 감춰 넣어 懷才不遇한 詩人의 人生觀을 나타냈다. 즉 永遠한 天地의 위대함을 예찬하고 또한 人生苦楚와 괴롭고 짧은 人生의 主題로 及時行樂의 醉飲狂歌로 全篇을 관철시키는 기세와 力量을 보였지만, 그 裏面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個體의 人格과 사회질서의 충돌, 有限한 生命과 영원한 自然造化의 극단적인 모순이 초월하여 自然에 복귀하고 있다.

流水意象으로 永遠히 離別한 者를 애도하는 콤플렉스(Complex)가 李白의 送別詩에 자주 보이고 있다.

海風吹不斷, 江月照還空.〈望廬山瀑布水, 其一〉
바닷바람 끊 없이 불어 長江의 영롱한 달빛 공허해진다네.
雲帆三望遠不相見, 日暮長江空自流.〈送別〉
님이 탄 배는 멀리 구름 위에 떠 안보이고 날리우니 장강은 무심히
자연스레 흐르네.
請君試問東流水, 別意與之誰短長.〈金陵酒 送 留別〉
그대에게 묻겠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아쉬운 이별은 도대체 어
느 것이 길까요.
孤帆遠影碧空盡, 唯見長江天際流.〈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외로운 돛대 작은 모습 멀어지더니 벽공에 사라져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 끝으로 흐르는 물뿐일세.
寄情與流水, 但有長相思.〈涇川送族弟錞〉
그대 생각하는 애정을 유수에 떠 내려 보내건만 그대도 사모하는 정
은 계속 새로워지네.
東流若未盡, 應見別離情.〈口號〉
長江이 동쪽으로 흘러 끝이 없다면 우리들 이별의 정 역시 끝없으리.

이 流水의 意象으로 感情을 불어넣어 友情의 심심한 사모하는 마음
을 표현했다. 이별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리움은 더 솟구쳐 유수
의 끊임없는 것 같이 하였다. 또한 流水에 友情을 기탁하였고 友人은
流水가 빨리 흘러가는 것에 따라 悲哀感을 詩人에게 암암리에 불러 일
으켜 友誼가 영원토록 流水처럼 변함없기를 기원하고 있다. 流水를 단
순하게 보지 않고 心理의 복잡성과 침통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광대한 激浪의 바다 물로 社會와 國家 및 자신의 마음이 충격을 받
아 편하지 않음을 詩語化했다.

海水不滿眠, 觀濤難稱心.〈送紀秀才游越〉
大海를 보아 壯大한 마음에 차지 않고, 큰 파도를 보아도 雄心 꺾을
수 없네.
海水落斗門, 湖平見汭汭.〈題瓜州新河錢族叔舍人賁〉
바닷물 斗門거리에 밀어닥쳐 호수 물에 잇섞여 백사장 꾸불꾸불.

水落海上清, 鼉背觀方蓬.〈贈盧徵君昆弟〉

맑은 물 쏟아져 흘러 바닷물 맑아, 큰 자라 등에 타 方丈 蓬萊山도 보리라.

巨鼉未斬海水動, 魚龍奔走安得寧.〈猛虎行〉

큰 자라 아직 못 죽여 바닷물 출렁, 백성과 임금 편안한 날 없더라.

海水不可解, 連江夜爲潮.〈送殷淑, 其一〉

광대한 바닷물 알 수 없어, 강물 불어 밤에 높아지네.

驕陽何太赫, 海水燦龍龜.〈感時留別從兄徐王延年從弟延陵〉

누가 바닷물 넓고 깊다 했는지, 大海 길어도 님 향한 내 맘보다는 알 으리.

見君萬裏心, 海水照秋月.〈登巴陵開元寺閣贈衡嶽僧方外〉

그대 만리 먼길의 애뜻한 심정 살피니, 광대한 海水에 가을 달 비치 듯.

海水三清淺, 桃源一見心.〈擬古, 其十〉

맑은 바다 물로 세 번 알아져, 武陵桃源에 한 번 가본 듯.

海水渤澥, 人羅鯨鯢.〈萬憤詞投魏郎中〉

바닷물 끓여 용솟음쳐, 고래 날뛰듯 安祿山 난동에 백성들 괴로워.

手中電擊倚天劍, 直斬長鯨海水開.〈司馬將軍歌〉

손엔 단번에 칠 天子의 大劍 쥐어, 곧 큰 고래 베어 평화롭게 하리.

吾曾弄海水, 清淺嗟三變.〈贈王漢陽〉

내 일찍이 바닷물을 손 장난쳐, 맑은 바닷물 세 번 알게 했었지.

傳聞海水上, 乃有蓬萊山.〈雜詩〉

듣건데 수평선 넘어, 仙境인 蓬萊山 있다더라.

이처럼 李白은 河川, 湖水의 激流로는 모자라 海水의 激浪으로 울분에 찬 심정을 과격하게 吐露했다. 또한 바다의 자라로 安祿山을 비유해 安史의 亂 주동자를 천자께서 下賜하신 天劍으로 電擊으로 목을 베어 무고한 백성들에게 平和를 주겠다는 武人의 氣質을 표현했다.

2) 水의 急流性 意象

李白은 주의 自然景觀을 통해서 물의 快速性を 流水란 詩語를 쓰지 않고도 急流의 意象을 한껏 나타낸 名作을 보겠다.

朝辭白帝彩雲間, 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住, 輕舟已過萬重山.〈早發白帝城〉

아침에 색색의 무늬 구름 사이 白帝城을 떠나 천리나 먼 길 江陵 땅

하루만에 이르네. 양쪽 높은 언덕의 원숭이 울음소리 처절해 쪽 배는 어느덧 첩첩 산중 다 누웠다네.

本詩가 萬古絶唱인 까닭은 題目에서 暗示하듯이 白帝城을 새벽에 출발한 돛배가 千里나 먼 江陵을 하루에 도착한다는 快速性에 있고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豪快性을 내보이고 있다.

李白은 安史의 亂 때 玄宗이 長安을 떠나 蜀(四川省)으로 蒙塵하면서 太子李亨과는 다른 方面에서 叛亂을 진압시키라는 下命을 받은 永王 李璣의 幕下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李亨은 玄宗과 상의도 하지 않고 皇帝에 登極했으니 바로 肅宗이다. 肅宗 至德二載(757)에 肅宗은 永王 李璣이 勢力이 커지는 것을 보고서 永王 李璣에게 자신에게 항복하여 命을 받을 것을 下達했으나 永王이 拒絕함으로써 目前的 叛亂軍을 度外視하고 兄弟之間의 暗鬪와 內戰으로 치달아 결국에는 永王이 敗戰했고 被殺되었다. 李白은 內政과 兄弟之間의 反目を 모르고 李璣의 幕府에서 幕僚로 〈永王東巡歌〉等の 詩로 士氣를 드높였다. 李白은 永王에 連坐되었지만, 郭子儀 등의 救命과 詩의 鬼才를 인정받아 夜郎(지금의 貴州省 西部)으로 流配되는 몸이 되어 白帝城(지금의 四川省 奉節 東쪽 白帝山)에까지 왔다. 肅宗 乾元二年(759) 이곳에서 大赦免 소식을 듣고서 長江을 따라 江陵으로 되돌아 갈 때 이 시를 쓴 것이다. 李白은 罪囚로 長江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더디기만 했으나 赦免을 받고서 順流로 歸還하는 流水를 쓴살같았다. “朝辭白帝彩雲間” 첫 句는 李白이 乘船한 時間과 地點, 그리고 白帝城 地勢가 높고 險峻해 마치 구름 속에 두둥실 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다음 詩句의 順流의 急流性과 快速性을 暗示해 描寫했다. “千里江陵一日還”의 둘째 句는 遙遠한 거리 “千里”를 瞬間의 時間 “一日”로 對比시켜 舟行의 빠름을 자신의 유쾌하고 輕快한 심정을 돋보이도록 서술했다. “兩岸猿聲啼不住, 輕舟已過萬重山” 三, 四句는 먼저 원숭이의 斷腸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쓰고 輕舟를 표현했다. 詩人은 대단히 巧妙한 修辭手法을 써서 더욱 돋보이도록, 끊임없는 원숭이의 울부짖는 소리로 輕舟의 快速性과 敏捷性을, 그리고 萬山連綿으로 長江의 一瀉千里를 표현했다. 林立한 兩岸의 깎아지른 絶壁과 험 없는 원숭이 울음소리 그리고 急流에 날 듯이 떠가는 돛배의 畫面을 나타냈다.

이 詩는 想像이 豊富하고 筆力이 雄渾하며 誇張法의 運用을 돋보이게 하는 특이한 手法, 輕舟의 急速한 疾走와 주위의 情景를 생동적으로 묘사하면서 또한 비할 곳 없는 快樂한 자신의 內面을 詩句의 行間에 침투시켜 놓았다.

海客乘天風，將船遠行役。譬如雲中鳥，一去無蹤跡。(估客行)
바닷 길은 천풍에 얹혀, 배를 타 먼길을 떠나네. 구름 속의 새처럼
홀쩍 뜨니 자취도 없다네.

詩人은 四川省 一帶를 漫遊했고 景觀地理學에 通達했기에 이러한 長江 三峽을 輕快한 進行曲으로 形容할 수가 있었다. 歷代騷人黑客들이 白帝山의 丘陵 위 白帝城의 歷史性이나 巫山山脈에 횡으로 걸쳐진 三峽의 瞿唐峽 등을 읊었지만 이에 比肩할만한 作品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李白의 故鄉은 蜀(지금의 四川省)이니 강이 많아 자연히 流水와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므로 물은 李白의 心中의 重要한 地位를 차지했고 屬性을 人文地理學으로 看破했다. 全篇의 主題는 壯途의 樂觀的인 希望과 快速性으로 天衣無縫의 神品이다. 峨眉山月이 天上의 故鄉의 象徴이라면 長江의 支流인 平羌江의 流水는 地上의 故鄉의 象徴으로 詩人은 意圖的으로 詩化했다고 본다. 故로 李白은 他鄉살이의 설움과 不運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면 峨眉의 달과 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不撓不屈의 進取性으로 邁進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我在巴東三峽時，西看明月憶峨眉。月出峨眉照滄海，與人萬里長相隨。
(峨眉山月歌送蜀僧旻入中京)

나는 巴東 三峽에 살 때, 서쪽 아미의 명월을 기억했죠. 야미산 달이
창해를 비치면, 사람 따라 멀리 쫓아가려 했죠.

長江 三峽의 兩岸이 林立한 千仞斷崖로 急流의 水勢를 暗暗裏에 표현하고 있다. 客地에서 고향 蜀(四川)의 스님을 만나 울적한 心情을 한껏 吐露하고 헤어지기 섭섭함을 三峽의 急流와 峨眉의 明月로 비유했다.

流水의 意象으로 時間性 즉 詩人이 直面하고 있는 時代의 背景에 따

라서 對抗하고 도전하는 양상으로 표현했다.

巴水急如箭，巴船去若飛。十月三千里，郎行幾歲歸。(巴女詞)

巴水の 急流 손살갈아 배는 신속하기가 화살 같네. 下流의 吳楚지방
三千里 배길 님은 어느 해에 돌아올런지.

十六君遠行，瞿塘灩澦堆。五月不可觸，猿聲天上來。(長干行)

열 여섯에 님은 멀리 가서, 구당협의 염여퇴 험한 배길, 원숭이들
하늘에서 울부짖는 곳.

掛流三百丈，噴壑數十里。(望廬山瀑布)其一)

三百丈 높은 물줄기 수십리 계곡 요동치네.

我浮黃河去京關，掛席欲進波連山。(梁同吟)

황하물에 떠서 저는 수도 長安 가려고 돛대 올려 나가니 山같은 물
보라 계속 일어나네.

欲渡黃河冰塞川，將登太行雪萬山。(行路難)其一)

황하를 건너자니 얼음에 막히고 太行山 오르자니 白雪이 너무 쌓였
네.

橫江欲渡風波惡，一水牽愁萬里長。(橫江詞)其二)

횡강을 넘자니 풍파가 거세게 일어 강물이 萬리나 길 듯 수십도 많
다네.

天門中斷楚江開，碧水東流至北迴(望天門山)

하늘문 가운데 갈라져 楚江터져 흘러, 푸르른 물살 동쪽 흐르다 이곳
에 닿아 격였네.

若有人兮思鳴皋，阻積雪兮心煩勞。洪河凌竟不可以徑度，冰龍鱗兮難容
舟刀。(鳴皋歌送岑征君)

鳴皋山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면 積雪이 가로막아 마음만 애태워 앞
의 큰 강 겁나 못건너고 용의 비늘 같은 얼음판 쪽배 난파시킬 듯.

黃河西來決昆侖，咆哮萬里觸龍門。波滔天，堯咨嗟。大禹理百川，兒啼
不窺家。殺湍壅流水，九州始蠶麻。(公無渡河)

황하는 멀리 서쪽에서 흘러내려 곤륜산을 넘고 포효하며 萬리나 흘
러내려 龍門에서 급류가 되네. 물결은 하늘에 이어진 듯 요임금 洪水를
보고 유능한 官吏를 찾아 우임금 水災를 막아 온나라 백성들 안심하고
농사지었네.

上有青冥之高天，下有淥水之波瀾。天長路遠魂飛苦，夢魂不到關山難。
(長相思)

위에는 푸르르고 어두운 높은 하늘이 있고 아래는 푸르른 물이 흐르
는 냇가에 물결치는 모습, 하늘엔 길게 뻗은 도리가 있지만 멀어 영혼
도 날아가기 힘들고 꿈속의 영혼도 山에 막혀 가기 힘들다.

上有六龍回日之高標，下有衝波逆折之回川(蜀道難)

위에 여섯 용이 끌던 해수레도 돌아섰던 고표산, 아랫 암석절벽 치는 물살 거꾸로 흐른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런 意象을 세상살이가 험악하거나 如意치 못해 理想을 펴지 못한 것이라 해석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狂暴, 凶險으로 詩人이 社會現實의 체험과 生存상황의 感受를 注入시켜 個體와 社會가 相互對抗하는 力量을 나타내었다.

李白은 몇몇 詩作에서 流水의 웅장한 위용을 표현했다. 〈望廬瀑布, 其二〉“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前川. 飛流直下三天尺, 疑是銀河落九天.(향로봉 햇빛에 푸른 연기 서리고 중턱에 폭포수 걸려 쏟아져 내리네, 휘날려 내림이三千을 떨어지니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듯.)” 蘇軾이 극찬한 詩句로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렁찬 폭포를 클로즈업시킨다. 눈부시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어서 밤하늘의 九天 하늘의 세계로 끌어들여 꿈인 듯 생시인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기상천외의 과장성을 내보인다. 우리들은 시인의 웅대한 흥금과 자유분방한 心靈의 世界를 엿볼 수 있다. 이로써 시인의 비범한 人格力과 향상된 精神力을 體現시켰다.

李白이 激情 뒤의 평온한 心情과 水景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묘사하여 마치 거울 같다고 한 표현을 보겠다.

月映清秋水. (〈公談陵陽山水兼期同遊因有此贈〉)

달빛은 깨끗한 가을 물에 비친다.

紺殿橫江上, 靑山落鏡中. (〈流夜郎至江夏〉)

감색의 불당이 양자강 물에 횡으로 비쳐 靑山은 거울 같은 강물에 떨어진 듯.

人行明鏡中, 鳥度屏風里. (〈清溪行〉)

물 맑아 사람이 거울 중간을 가는 듯 새가 날아 넘어려니 돌산이 양쪽에 우뚝 병풍갈네.

水閉明鏡轉, 雲繞畫屏移. (〈與賈至舍人望湖〉)

웅호의 물은 맑은 거울인 듯 구름은 호수주변에서 병풍이 회전하듯 山從圖上見, 潏卽鏡中回. (〈宣城九日〉)

四方이 山이어서 그림 속에 묘사한 산인 듯, 맑은 물은 거울 속에 비친 듯 아름답다.

吾憐宛溪好, 百尺照明心. (〈題苑溪館〉)

내가 宛溪의 풍경 좋아해 백척 깊이 마음을 밝게 비추네.

거울로써 물의 청결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은 李白이 創始者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先人들의 관점과 틀리고 흔적 없이 매끄럽게 사용하여 청결한 물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물의 意象으로 시인은 人心과 萬物의 清純美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도 指向하는 바로 삼기도 했다.

李白은 해맑은 물로 神의 傳達者가 되는 기묘한 筆致로써 虛虛實實의 中間에서 實際인 듯 虛像인 듯한 意象을 표현했다. 뱃놀이로 水上의 妙趣를 기상천외의 詩句로 써 낸 것을 보자.

水色南天遠, 舟行若在虛. (《送別》)

물빛 남쪽 하늘가에 멀리 뻗었다면 내달리는 배탄 나그네는 허무하네.

人乘海上月, 帆落湖中天. (《尋陽送弟昌齡鄱湖可馬作》)

사람이 물에 비친 달을 탄 듯 보이고 범선의 돛대는 하늘로 가다가 호수로 떨어진 듯

人遊月邊去, 舟在空中行. (《送王屋山人魏萬還王屋》)

나그네가 달을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 놀다가 배를 타고 하늘 끝으로 가버리네

樓船入天鏡, 帆殿開雲衢. (《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하늘의 거울속으로 들고 배 위의 누각은 구름 속의 큰 길거리인양
日落沙明天倒開, 波掇石動水縈回. (《東魯門泛舟其一》)

해가 西山에 저 물 밑바닥의 모래를 밝게 비추 하늘은 비친다. 일렁이는 파도에 돌도 움직여 물보라 연달아 엉켰네.

물 위에 뜬 배가 마치 空中에서 떠다니듯 한 水天一色의 세계다. 실체인 듯 허상인 듯, 진짜인 듯, 가짜인 듯하여 전부가 상상의 필체솜씨다. 그런 가운데 李白의 무궁무진한 심미의 정취가 깃들여졌다. 그래서 李白은 물의 청결한 意象을 “空”으로 형용하기를 좋아했다.

霜落荊門江樹空, 布帆無恙掛秋風. (《秋下荊門》)

荊門山에 서리 내리니 강변엔 다 낙엽졌고 布帆은 가을 드센 바람에도 온전했네.

楚水清若空, 遙將碧海通. (《江夏別宋之悌》)

초나라 땅 흐르는 양자강물이 푸르른 하늘과 같다면 유유히 흘러 푸른 바다에 통하리.

水色倒空清, 林烟橫積素. (《早過漆林波寄萬巨》)

강물 하도 맑아 푸르른 하늘 물 속에 비쳐 냇가의 나무가 물결 위에
흰 비단을 쌓아 걸친 듯

岸回沙不盡，日映水成空。(《流夜郎至江夏》)

냇가 언덕 구부러져 하얀 모래 벌판 먹고 태양이 냇물 비치니 맑은
물은 하늘 속에서 보이네

天清遠峰出，水落寒沙空。(《峴山懷古》)

하늘이 맑으니 멀리 봉우리 돋보이고 가을 물 깨끗해 백사장 넓어
비어있는 듯

以上の詩句에서 말한 “空”은 곧 無形天色이며, 虛인 듯 하며, 實狀
은 眞實의 存在이며, 透明感이다. 또한 李白은 “空”으로 世波에도 依舊
한 山水景致를 형용하기를 좋아했다.

鏡湖水如月，耶溪女如雪。(《越女詞》其五)

경호의 물은 달처럼 해맑고, 야계의 女人은 눈같이 희다.

水色空絕世，香竟誰傳。(《古風》其二十六)

아름다운 물빛은 天下一色, 향기를 누구에게 전하리.

水寒夕波急，木落秋山空。(《秋夜宿龍門香山寺》)

물이 차가운 것은 저녁 물살 급히 흘러 물보라 일어 낙엽 흩어지니
가을 산은 맑고 떨어진 듯.

客散青天月，山空碧水流。(《謝公亭》)

離散의 나그네 青天의 明月 휘영청 山間이 깨끗하니 흐르는 계곡 물
도 아름답다.

蒼山空四隣。(《當塗趙炎少府粉圖山水歌》)

푸르른 산이 맑고 넓어 四方이 모두 이웃인 듯.

이렇게 李白이 “空”을 사용한 것은 비록 禪意의 “色卽空”을 體得한 바
도 없지 않지만 자신이 審美感에서 출발하여 山水의 神韻을 포착한 것
이라 하겠다. 淸水로 李白은 皎潔한 색상을 나타내었다.

漢水舊如練，霜江夜清澄。(《秋夜板橋浦泛月獨酌懷謝朓》)

漢水の 물도 옛처럼 비단 같고 차가운 큰 강물 밤에 더욱 깨끗한.

萬里舒霜臺，一條江練橫。(《雨後望月》)

萬리나 멀리 舒州는 서리가 없힌 듯 그 가운데 흐르는 강물이 횡으
로 걸쳤네.

水如一匹練，此地卽平天。(《秋浦歌》其十二)

추포의 물은 깨끗해 한 필의 비단인 듯 이곳의 땅은 편편해 하늘인

듯.

靑橙拂戶扇, 白水流園池. 〈贈徐安宜〉

푸른 등나무 열매 흔들리니 햇빛 받은 하얀 냇물 園池에 흐르네.

靑山橫北郭, 白水繞東城. 〈送友人〉

푸른 산은 마을 북쪽에 길게 누웠고, 맑은 물 성곽 동쪽을 돌아 흐르

네.

黃雲結暮色, 白水揚寒流. 〈江上秋懷〉

황혼에 황색구름 떠 있고, 찬물은 흰 물보라 일으키네.

霜清東林鍾, 水白虎溪月. 〈廬山東林寺夜懷〉

서리는 맑은 동림사의 종인 듯 물은 희어 호계의 달인 듯.

물은 본래 無色인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양상이 틀리니 詩人의 眼目으로 얻는 인상은 도리어 아주 크다고 하겠다.

李白的 詩中에서 水의 意象은 또 色彩의 선명하고 신선함과 조화롭게 결합시키기도 했다.

竹色溪下綠, 荷花鏡里香. 〈別儲邕之剡中〉

계곡아래 대나무 색깔 푸르러 예쁘고 연꽃은 거울 같은 물에서香氣를 내뿜네.

芙蓉嬌綠波, 桃李誇白日. 〈感興八首其四〉

부용은 푸르름으로 교태 부리고 복사꽃과 오얏꽃은 太陽을 뛰어넘네.

遙看若桃李, 雙入鏡中開. 〈送侄良携二妓赴會稽戲有此贈〉

흔들림은 복사꽃과 오얏꽃처럼 보이고 두 사람의 藝技는 거울 속에서 꽃이 핀 듯.

人疑天上坐樓船, 水靜霞明兩重綺. 〈江上贈寶長史〉

사람은 天上의 樓船에 앉은 듯 물은 맑아 석양 노을에 비단이 엇갈려진 듯 예쁘네.

中流槩彩鷁, 列岸叢金鷄. 〈涇川送族弟錡〉

涇川의 中流엔 익수를 새긴 배가 있어 강변엔 황금으로 장식한 말들이 무리져 있네.

詩人은 꺾일 줄 모르는 政治的 出路 모색을 물의 意象과 주변환경의 景觀의 樣狀으로 표출했다. 李白은 太宗의 貞觀之治에 대해서 〈塞上曲〉으로 開元之治에 대해서는 〈憶昔〉으로 읊었다. 玄宗을 보좌한 名宰相 姚崇, 宋璟, 韓休, 張九齡 等等이 있었기에 정치적 성과를 볼 수 있었다. 李白이 翰林供奉이 된 天寶元年(742년)은 開元之治의 기세가 그런

데로 남아 있던 시기였다. 李白은 奸臣 李林甫와 같은 宰相은 인간 쓰레기로 보았고 자신은 역사에 남는 名宰相이 되고 싶어했다.

3. 結論

唐代는 中國古典詩歌의 全盛期로 陶淵明의 田園詩와 謝靈運의 山水詩가 表現手法上 最高의 경지에 이르렀다.

李白은 陶淵明과 謝靈運 및 “小謝”로 世稱되는 謝朓의 山水詩에서 이룩한 藝術的 成就를 基礎로 하여 더욱 形象性을 짙게해 發展시켜 나갔다.

李白은 古代 中國文明의 發祥地로서의 黃河와 長江을 찬양하고 夏王朝의 始祖인 禹王의 治水事業을 찬양하였으니 그 重要性을 看破한 때 문이라 하겠다. 禹王은 洪水로 갓은 災難을 겪는 百姓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舜임금으로부터 王位를 禪讓 받았는데, 詩人은 禹王의 資質과 自然을 克服해 낸 敢鬪精神을 고무했던 것이다.

李白은 25세에 出蜀하여 61세에 當塗에서 죽을 때까지 靑雲의 꿈을 늘 간직했고 時運이 如意치 않을 때는 물의 激浪 意象으로 作詩하며 울분을 진정시키고 늘 理想을 추구했다.

李白의 詩風이 豪放하고 飄逸함을 自然界의 水의 意象으로, 特히 流水로 여실히 그 特徵을 드러내어 中國詩壇의 神境界를 創造해내었다고 하겠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물의 意象은 高요하기도하고, “水濁不見月(물이 혼탁해 달도 볼 수 없네)”(<獨漉篇>), “水濁不可飲”(<丁督護歌>)처럼 混濁하기도 한데, 이는 “我本楚狂人, 狂歌笑孔丘” 하는 李白이 近三年間 翰林學士 생활이라는 고매한 정신의 웅졸한 정치적인 생활에 적응치 못한 것과 연관이 있으니 翰林院 生活도 역시 布衣신세였다. 그래서 때로는 엄숙단정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하게 물의 意象으로 內心世界를 表出한 것이다. 또한 거울처럼 해맑고 白雪처럼 皎潔하고 山靑水秀, 靑山綠水 등은 李白의 內在한 정신과 情感이 부단히 相通하는 것이다. 또한 漢字의 特性上 같은 글자를 두세 번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피하는데 李白은 과감하게 “前水復後水(앞물 따라 뒷물 연이어 흐르

네)”(《古風》其十六)라고 써서 더욱 박진감 있게 표현했고, “抽刀斷水水更流, 舉杯鎖愁愁更愁(칼 뽑아 물을 베어도 물은 더욱 세차게 흐르고, 잔 들어 시름 지으려 하니 시름 더 깊어지네.)”(《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라고 하여 울분에 찬 自畫像을 소탈하게 그렸다.

水を 통해본 李白의 詩는 물의 人間과 연관성을 力說했고 그 속성을 완전히 파악하여 물과 혼연일체가 되어 先人들의 自然(水)에 대한 詩의 등급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無爲自然에 歸一하여 絶對存在인 물과 人間이 더불어 함께 共存하는 悠悠自適한 李白의 內心世界의 一面을 水의 意象으로 披瀝했다.

參考文獻

- 庄輝明, 李向平, 李朝遠《十大江湖》, 上海古籍出版社, 1992
 孫輝煜, 《文學知識》, 內蒙古教育印刷, 1977
 艾青, 《詩論》, 人民文學出版社, 1983, 北京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東京,
 安旗, 《李白全集編年註釋》上中下, 巴蜀敘事, 1990
 李白, 《李太白全集》上中下, 中華書局, 1971
 羅宗強, 《隋唐五代文學思想史》, 上海古籍出版社, 1986
 柳晟俊, 《中國唐詩研究》上·下, 國學資料院, 1994
 胥樹人, 《李白和他的詩歌》, 上海古籍出版社, 1982
 松浦友久, 《李白詩と心象》, 社會思想社, 1970
 松浦友久, 《李白研究》-抒情の構造, 三省堂, 1976
 박충록, 《李白과 그의 詩》, 도서출판 태동, 1989
 賀秀明, 《論李白山水詩的飛動特徵及其他》, 《廈門大學學報》, 1989, 第4期
 伍蠡甫, 《山水與美學》, 丹青圖書, 1987, 臺北
 田軍外二人, 《中國古代田園山水邊塞詩》, 光明日報, 1991, 北京
 馬東田, 《唐詩分類大辭典》上中下, 四川辭書, 1992, 成都
 王洪, 《唐詩精華分卷》, 朝華出版, 1991, 北京